

台)라는 시(詩)를 읊을 때 따오기라는 새가 와서 울었다 하여 흑대산(鵲台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제3절 다천1리(茶川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정명1리(正明一里)와 접(接)하고, 서쪽은 다천2리(茶川二里)와 인접(隣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1리(黃堡一里), 북쪽은 황보리(黃堡里)와 접(接)해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2014년에 다천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550년에 박성후(朴成厚)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김응조(金應兆)라는 선비가 이곳에 이거(移居)하면서 하천(河川)에 다초(茶草)가 많다 하여 다천(茶川)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6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조선시대 명종(明宗) 때 삼성(三姓)이 돌무덤을 만들고,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어 매년 제사를 올렸다 하여 지금도 제향(祭享)을 올린다.

2) 윗들

집 뒤에 큰 들이 있는데 윗들이라 하였다.

3) 진신제(緝神祭)

약 240년 전에 박영로(朴榮老)란 선비가 평해(平海) 관아에 출입(出入) 당시(當時) 관원(官員)들이 진신령(緝神靈)을 임명받았다 하여 제(祭) 이름을 진신제(緝神祭)라고 불렀다.

제4절 다천2리(茶川二里)[속명 : 상다천(上茶川)]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다천1리(茶川一里)와 인접(隣接)하고, 서쪽은 정명천(正明川)의 상류(上流)로 이평리(梨坪里)와 접(接)하며, 남쪽은 황보1리(黃堡一里), 북쪽은 방울리(芳栗里)와 접(接)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새로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고려조인 1380년경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마을을 개척하였고, 김응조(金應兆)란 선비가 하천(河川)에 다초(茶草)가 많다 하여 다천(茶川)이라 하였다. 그 후 마을의 위치가 하천 상류(上流)에 있었으므로 상다천(上茶川)이라 하였다. 죽미는 약 300년 전에 마을을 개척할 때 대나무가 많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45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안동 장씨(仁同張氏), 대흥 백씨(大興白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영수독

마을 주위의 산(山)에 화산맥(火山脈)이 있다 하여 산봉우리에 단지를 묻고 매년 한 번씩 이 단지에 바닷물을 길러 부어놓고 마을 제사를 지냈다고 전한다.